

여자의 마술.....

현주는 부드럽게 풀어요

현주도 매직스로 바꾸고 깜짝 놀랐어요.

늘 그날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려니 했었는데

매직스의 부드러움은 그날이지조차

잊어버리게 할 정도니까요.

비밀은 바로 매직커버!

여자를 감싸는 부드러움이 참 좋아요.

매직스만의 비밀공법 매직커버. 생리혈이 흡수되는 부분을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처리하여 실크같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이 매직커버가 부드러움의 비밀



월간 2683주



'99 제 1회 월경 Festival

유혈남자

- 이 순간, 세계 여성의 1/5이 생리 중입니다.

일 시: 9월 10일 금요일 (사전행사 12시부터, 본행사 6시부터)

장 소: 고려대학교 대운동장

주최: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연합 여성문화기획 "불턱"



'99 제 1회 월경 Festival

축하의 글

그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또 한번 즐겁게 놀아보자

1.
뭐?
월경 페스티벌을 한다고?
발췌 그 때가 왔는가?
그렇다면 해야지.
지난 봄 안티 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이 났듯
이 축제도 아마 신나게 끝낼 수 있을 거다.
도대체 즐거운 일이 없는 때에
또 한번 창조적 에너지를 주고받을 일이?

2.
나라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여자는 늘 이등 시민이라고
억울하다고
좀 공평해 보자고
좀 나누어 갖자고
좀 끼워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성명서 내보아야
누가 일등 만들어주는 일없고
끼워주는 일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들의 외침과
피해자들의 의제는 이제 그만,
왔다.
파워 페미니즘,
힘있고 즐거운 축제로 방향을 바꾼다
형식을 바꾼다.

3.
금기를 깨뜨리기,
월경에 대해 스스로없이 말하기.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 자체로
금지를 당해온 자는 해방감을 느끼고
언어의 세계
기존의 질서는 뒤죽박죽이 된다.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가 불려일으키는 힘은
금기시한 정도에 비례한다.
강력하게 금지된 것일수록
깨뜨림의 파문은 클 것이다.
금지한 자들로부터 또 다른 저항이 날아올 것이다.

조한 혜정(또하나의 문화 동인, 연세대 인문학부 교수)

그것을 유연하게 즐기는 것
그것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낸다.

4.
월경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어야 한다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여자들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군대에 대해 말하라고 부추기는 사회에서
군대에 대해 말할 때
남자들은 어찌되는 걸까?

출산율 1.48시대,
20여년 만에 급속하게 노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
조만간 출산 장려책을 쓰지 않으면
나라의 앞길이 위태롭다 한다.
군가산점보다 출산 가산점?

모두를 동일한 존재
경직된 남자로 만들려는 사회
무런 그런 획일 사회를 벗어나.
이 깊은 뜻을 자들이야 알아 없건만
우린 벌써 섣길을 내었다.

5.
내 친구 프리디는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그녀는 한 달을 생리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교수이며 사진예술가인 그는
생리통 주기를 사진작품으로 표현했다.
열리고 닫히고 흐르고 고이고 ...
그 작품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있다.

체험을 말할 자유,
담사가가 이야기 하기
고통 받는 자가 직접 이야기 하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남의 체험을 대변해주겠다고 나서서 자가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 나는 다니고 싶다.
그런 나라에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이미 잠시 잠시씩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다.
사실 우린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1999년 9월 10일 월경축제에 부쳐

이숙경, 안혜성, 박홍주(99 내공프로그램 기획팀)

지난 여름은 혹독하리만치 무더웠다. 폭염에 찌든 8월의 저녁에 서른명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내공'을 쌓기 위해 밤늦도록 땀을 흘리며 초가을저녁에 상쾌한 축제를 마련했다. 월경페스티벌은 '불턱' 사람들의 뜨거웠던 여름이 보내는 축복이다. 나는 후배들이 만들어낸 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나의 초대에 이렇게 멋진 응답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가진 소망과 기대, 그리고 재능으로 차려진 밥상을 맛있게 먹어준 후배들에게 고맙고, 우리가 함께 나눈 밥과 반찬을 이렇게 멋진 에너지로 분출하는 것에 다시 고맙다.

이 축제는 80년대 학번인 삼십대 여성운동가와 20대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의 예정된 만남이며, 보다 힘있는 여성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우리들. 다르지만 그 다양함으로 축제를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그 공유의 기억이 우리를 힘있게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월경축제에 환호하며

고은광순(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우리나라의 TV에서 생리대광고가 시작된 것은 1995년 1월 1일 방송윤리위원회의 규제가 풀리면서부터이다. 그전까지는 '재수없다' 등의 여론을 '존중' 하느라 광고를 만들 수 없었던단다. 월경을 불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보아 월경중 여성이 앉았던 자리, 그 위의 물건에 닿았던 사람조차 시간이 지나야 부정을 씻는 것으로 믿었던 (구약성서 레위기15) 원시적 사고가 불과 몇 해 전 까지도 한국에 남아있었다는 이야기다.

남계혈통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들의 순결은 '중요한 가치'였으므로 강조되고 강요되었지만 정작 여성의 몸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임신은 '남성의 이익'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월경은 전적으로 '권력이 없는 여성의 몸'에 속한, 비천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몸은 남계가문의 대잇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종을 재창조하는, 생명을 품어안아 우주의 꽃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다. 월경은 귀중한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현상이다.

부계혈통제만을 고수하는 가부장제는 부모양계혈통제로 바뀌어야 하며 도구로서의 여성의 역할(축복, 가문 속의)은 폐기되어야 한다. 월경축제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제 월경축제를 통하여 월경은 '재수없는 불결한 것'이라는 남성우월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비로소 해방을 맞게 되었다. 월경축제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찬사를 보낸다.

사랑으로...



'99 제 1회 월경 Festival

PROGRAM



Opening

드럼쇼 / 심진수

파워풀한 드럼의 소리로 신나게 축제를 엽니다.



영상물 1

- 드러내라

봉근웅



축하공연: 열혈 핑크키드,
푸른 핑크벌레

공트: 그가 생리를
하던 날



축하공연: 김정은

임신 9개월의 여성이 노래하는 월경은?

곡목: 선택, 해야



영상물 2

- 초경에서 완경까지

봉근웅

초경하는 소녀부터 완경기 아줌마까지, 세대를 뛰어넘는 월경의 경험



Free Speech zone

그 동안 말할 수 없었던 월경,
이제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자구요.



Performance "신에게는 딸이 없다."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월경의 기를 보여드립니다.



축하공연: 크라이닝 넷

곡목: 갈매기, 딸달리자

1 "정상적인 월경이란? 1"

생리주기가 아주 정확하고 규칙적인 여성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우가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병에 걸렸다가 신체의 또
는 정신적으로 힘에 부치는 상황을 겪거나 하면 생리주기는 갑자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략) ... 주기는 대체로 20일에서 30일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생리일을 대체로 이틀~여드레 사이 구요. 그러나, 주기가 더 길거나 짧아도 거의 규칙적이거나 하면 정상입니다. (출처:
섹스북)



"아저씨, 아저씨, 생리통 약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리통 약은 없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생리통약은 가짜이다. 생리통 약이라고 그것을 산 여성을 있다면, 속은 것이다.

이쯤에서 분명, '어~ 난, 매달 한 알씩 약을 먹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자. 그것은 생리통을 잊게 해주는 약일 뿐, 생리통을 없애는 약은 아니다. 두통, 치통에 덩으로 딸린 그저 많은 통증 중의 하나로 취급될 뿐이다. 생리통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도 없다. 많은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통증을 겪고, 진통제를 먹거나 그도 아니면, 내성을 두려워하여 그저 참는다. 그것도 어디가 아프다고 말도 한 마디 못 하면서 말이다.

"폐경기는 없다"

폐경은 말 그대로 '월경을 달는다'는 뜻이다. 초경과 폐경, 이상하지 않은가? 시작한 월경은 끝나지 않고 닫힌다. 월경을 끝낸 여성은 하나의 문을 이미 닫은 상태인 것이다. 왜 월경을 마친 '원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일까? 에밀리 마친은 의학 교과서에 나타난 월경과 폐경을 설명하는 언어를 탁월하게 분석하여 의사, 해부학자, 일반 대중이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는데, 그들은 월경은 임신에 실패한 것이고 폐경은 생식 기능이 끝난 것이라고 보았다. ... (중략) ...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 ... (중략) ... 월경과 폐경은 실패, 상실, 결핍과 허약이 아니라 정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출처: '여자와 남자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생리전 증후군(PMS)란 무엇인가?"

생리학자들은 월경 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상적인 육체적 변화를 "월경 전 증후군"으로 한데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장애, 즉 치료와 주의가 필요한 병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 (중략) ... 여성은 통증, 아픔, 비만, 부종, 두통 등으로 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남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왜 여성의 기분 변화는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남성의 기분 변화는 "정상적인 기분"이라고 하는가? 왜 여성은 "변덕스럽다"고 생각하고 남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왜 정상적인 기분 변화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 (중략) ... 왜 남성의 변덕과 반사회적 행동을 호르몬으로 환원하는, "과다 테스토스테론 증후군" 또는 "비월경 불안정 장애"라는 정신 의학적 진단은 없는가?

(출처: '여자와 남자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남자가 멘스를 한다면..."

남자가 멘스를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분명 멘스란 부럽고도 자랑할 만한 남성적인 일이 될 것이다. ... (중략) ... 뒷골목 건달들은 "그치는 심중 페드를 하고 있어."라든지 "실은 다섯 개야." 따위의 농담을 나눌지도 모른다. ... (중략) ... 의과대학들은 여성의 입학을 제한할 것이다. (여성들은 피를 처음 보고 기절할지도 모른다.) ... (중략) ... 달과 별들의 운동을 측정하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없이 어떻게 여성들이 시간과 공간, 수리에 대한 고도의 감각을 요구하는 학문을 마스터할 수 있겠는가?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어떻게 여성들이 우주의 리듬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매월 한 번씩 일어나는 상징적 죽음과 부활 없이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말할 것이다.

(출처: '여성평등, 권력에 대한 공상')

스텝들은 말한다.



두입술 열풍

짧은 시간에 많이 배워 써먹느라 그동안 꽤 압축된 생활을 했다. 불안하고 불안속스럽지만, 엄청난 적자가 난다 해도 나는 기쁘리라. 물론 일은 그 자체에 더 큰 의미를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Beyond 학살

"발목을 시간도 잊고 열심히 뛰었다. 사실 난 계산기를 두드렸다. 힘들었지만 나는 또 사람을 얻어간다. 나 그리고 통신사를 하나 차렸다. '꽃이통신'이라고... 히힛

여위 진영

그저 행사가 빨리 끝나버리기만을 기다릴 만큼 처음 접하는 일들과 힘든 일이 많았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았던 주제를 말하고 그것을 가시적인 행사로까지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내 생애 최초의 결격품이다. 고마워요...

두입술 유영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생 우유 63팩 남짓의 생리혈을 쏟아낼 것이다. 행사 준비하며 유혈남자 털이 쏟아낸 앞의 영도 그들이 앞으로 쏟아낼 생리혈의 양보다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다들 신나게 놀고 갔으면... -for the peace of womankind

시대총아 안디

찾아온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다가 갔으면 좋겠다. 다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되겠지? 막바지 전력질주 합시다!

여위 수희

...

두입술 여주

모든 기획단들, 처음이라 미숙한데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해에는 좀더 멋진 페스티벌을 만들어보자. 이번 페스티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관악 여호 혜승

난 아직도 우리가 월경 페스티벌을 치른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Beyond 바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은 있어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관악 안

오옷, 어찌 엄청난 일이 있었다. 강남 중심가에서 파란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바닥에 앉아 포스터를 붙였다. 파란불이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도 우리 포스터를 붙일 수 밖에 없었다. 교통경찰이 차다보고 있고 그 뽕뽕... 흑흑흑, 그래도 기뻐요.

두입술 현숙

어떤 선배가 말했다. 지렛대를 제대로 놓으면 세상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고대 여위 혜선

여성학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줄이야.



고마워요...

질러잡이

반리나 : 현. R문화기획단장
ANTI MISS-KOREA FESTIVAL 총기획자
박혜경 : 현. R문화기획단 기획실장
이숙경 : 여성학자,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안혜성 : 현. 가족과 성 상담소 상담부장
박홍주 : 현. '여성학 사회' 편집위원

고문단

이귀주 : 고려대학교 여학생감
박태경 : KBS2 여성협회 회장
이계경 : 여성신문 대표
이혜경 : 여성문화예술기획사 '마녀' 대표
유숙철 :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편집위원
고은광순 : 전국 여한연사 협회장

후원

고려대학교 학생지원과 / 개리끼리 / 도서출판 토하
나의 문화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 / 여성 민우회 / 여성 신문사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 KBS 여성협회 /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 파인 연구회 / 한국 성문화 상담소 / 한국 여성 연구회 / 한국 여한연사 협회 (가나다 순)

협찬 **대한항공** **대한항공** **티아오즈카** **SK Telecom** **미건물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메디칼센터 로동기 생리 다관중 크리닉, 에서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양배추 한통이 이 한병에!



매일 나는
한통씩 먹는다?

매일 나는
간편하게 마신다!

Smart한 식이성 섬유음료 '화이브-미니'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제 6대 영양소
식이성 섬유, 화이브-미니 1병에 식이성
섬유 5g, 양상추라면 1통이나 먹어야 합니다.
깔끔한 맛과 탄산의 특성은 산뜻함으로
바쁜 아침시간에도 간편하게 마시는
스마트한 식이성 섬유음료 화이브-미니!
기분은 물론 몸속까지 상쾌해집니다.



동이오츠키

유통기한 확인으로 가족건강 나라건강

이공개혁신권

새삼의이 TTL



TTL Zone, TTL 자발로리 요금제

내 통화량에 맞게 골라야 하는 TTL요금
TTL지역 할인요금: 통화지역이 10초에 9원/ 우리 대학교 캠퍼스와 압구정, 강남역, 신촌 등
전국 4200개 지역중에서 최대 2곳까지 선택하면 10초에 9원!
TTL저장번호 할인요금: 특별한 친구와 최저 6원/ 011, 016, 012, 018, 019번호 등 내가 특은
친구 3명과 통화할 때 10초에 11.4원/ 십자시각에는 10초에 6원!
TTL카콜요금: 사장, 밤새 무료~ 나랑 나랑 저장부터 아침 6시까지 통화료 공짜! 둘이
월 200원 무료통화에 한도는 가입비도 5만원이나 할인!

TTL Zone, TTL 카드

내 지갑속의 할인면허증
TTL Friday's,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배너치아 20~25% 할인! 전국 50개 영화상영관에서
1,500원 할인되는 TTL 멤버십 카드. 몇번만 이용해도 한달 후대금 사용료 0원!

TTL Zone, TTL ZONE

우리 아저씨
TTL 전용 멀티카드 TTL ZONE은 음악, 영화감상, 게임, 인터넷이 공짜, 전기 이연트까지,
압구정, 강남역, 신촌에서부터 대전, 대구, 부산, 광주까지, TTL Zone 전용이죠!

TTL Zone, www.TTL.co.kr

산나는 대학교로 www.TTL.co.kr
내가 공부하는 대학교/ TTL 할리자-산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재로운 엔터테인먼트, 산물이
무엇한 감각 이벤트는 물론TTL포인트로 용돈도 항상 할자리! 어가선 우리가 뭘!

TTL Zone, TTL 전용휴대폰

내안의 핸드 액세서리
다양한 컬러와 독특한 모델, 부담없는 가격의 코디프링형 단말기로 합리적인 TTL 전용휴대폰은
나의 보물 1호!

TTL Zone, TTL 만을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쓰는 네트워크
TTL만 있으면 재미있는 정보가 가득한 사이버넷, 교육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기본! 채팅은
물론 네트워크 게임 좋아하는 음악도 마음껏 골라 들을 수 있어, 온라인 서비스 월 100원,
My Bell 서비스도 월 2회 공짜 공짜!

TTL Zone, TTL '내버려둔 패스워드'

결코 망치지 않는 365일 인증무휴 패스
매일 매일 산나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생각해서! 게다가 선물까지 몰려! TTL 코루즈,
TTL 신입생 환영회, TTL M.T 동경행사,
TTL 개강 대동계 등 TTL 이벤트는 일년내내 풍성하게 다가오고 있어, 아호!
이번 9월 이벤트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대왕암! 생이 펼쳐진 세계로 간다!
www.TTL.co.kr로 접속해봐.

파이어 T22N	모토로라 MC-8900T	에나 SCH-7300
23,000원	13,000원	77,000원

● 25세이하 TTL가입시 위 가격에서 또 3만원 추가할인!
● 타 기종으로도 TTL가입가능

TTL은 SK텔레콤이 신세대를 위해 만든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입니다

TTL은 SK텔레콤이 신세대를 위해 만든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입니다

● 25세이하 TTL가입시 위 가격에서 또 3만원 추가할인! ● 타 기종으로도 TTL가입가능

TTL

스무살의 011